

## 아야짜나경

(Āyācanasuttam, 청원경, S6.1.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 언덕에 있는 아자빨라라는 니그로다 나무에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때 세존께서 홀로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데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여 사념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도리, 즉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 즉 모든 형성의 그침, 모든 집착의 보내버림, 갈애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예전에 없었던 훌륭한 시들을 떠 올렸다.

[세존]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왜 내가 지금 설해야 하나.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들네.  
흐름을 거슬러가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미세한 진리는 보기 어렵네.  
어둠의 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숙고해서 주저하며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이셨다.

그때 범천 짜함빠띠가 세존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알아차리고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르게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주저하며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참으로 세계는 멸망한다. 참으로 세계는 파멸한다.'

그래서 범천 짜함빠띠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범천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범천 짜함빠띠는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세존께서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싸함빠띠]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거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못삶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천 싸함빠띠는 말했다. 말하고 나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싸함빠띠]

"일찍이 번뇌에 물든 자들이 생각해낸  
오염된 가르침이 마가다 국에 나타났으니  
불사(不死)의 문을 열어라.  
청정한 분께서 깨달은 진리를 들어라.  
산꼭대기의 바위 위에 서서 주변에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처럼  
현자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지닌 자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윈 자께서는 생사에 지배받는 슬픔에 빠진 못삶을 보시오.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일어서십시오.  
허물없는 캐러밴의 지도자여,  
세상을 거니십시오.  
세존께서는 진리를 설하십시오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범천의 요청을 알고는 못삶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밖에 오염되지 않은 못삶, 많이 오염된 못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못삶,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못삶, 아름다운 모습의 못삶, 추한 모습의 못삶, 가르치기 쉬운 못삶, 가르치기 어려운 못삶,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못삶들을 보았다.

마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의 연못에서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물 속에서 나오지 않고 수중에 잠겨 자라고,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수면에까지 나와 있으며,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못삶, 많이 오염된 못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못삶,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못삶, 아름다운 모습

의 못삶, 추한 모습의 못삶, 가르치기 쉬운 못삶, 가르치기 어려운 못삶,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못삶들을 보았다.

보고 나서 범천 짜함빠띠에게 시로써 대답하셨다.

[세존]

"그들에게 불사(不死)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나는 상처받는다는 생각으로 사람에게 미묘한 진리를 설하지 않았네."

그때야 비로소 범천 짜함빠띠는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진리를 설하실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는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그곳에서 사라졌다.

**註.**

- 모든 형성의 그침, 모든 집착의 보내버림... 소멸, 열반도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세속으로부터 점차적인 해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1) 모든 형상의 그침
- 2) 모든 집착의 보내버림
- 3) 갈애의 소멸
- 4) 사라짐
- 5) 소멸
- 6) 열반.

여기서 3)의 갈애의 소멸은 존재에의 갈애의 소멸을 뜻하며, 4)의 사라짐이라고 번역한 viraga는 원래 색깔이 바래서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부수어 없어지는 소멸을 뜻하는 niradha와 구별하였음에 주의해야 한다. 붓다고사는 이 모든 과정에 관해 '모든 번뇌의 경향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짜함빠띠:

붓다고사에 의하면, 짜함빠띠는 갓싸빠 붓다 시대에 싸하까라는 장자로, 그는 첫번째의 선정(初禪)에서 죽어 한 宇宙期(겁, 56억7천만년)를 사는 범천이 되었다고 한다.

-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

한역으로 如來, 應供, 正等覺者라고 한다. tathagata를 가이거의 독일어역 니까야에서는 '진리에 도달한 자'라고 번역했으나 원의에는 충실하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한역을 중시하여 '이렇게 오신 님'이라고 하며, 아라한은 '거룩한 님'으로 정등각자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으로 통일한다.

(아야짜나경-Āyācanasuttam-청원경, 상윳따니까야 S6.1.1, 전재성박사역)

## 가라와경

(Gāravasuttam., 존경경, S6.1.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 언덕에 아자빨라라는 니그로다 나무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홀로 명상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괴롭다. 참으로 어떠한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그때 세존께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계행**의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 보자. 그러나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계행을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삼매**의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 보자. 그러나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삼매를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지혜**의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 보자. 그러나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지혜를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해탈**의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 보자. 그러나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

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해탈을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

아직 원만히 성취되지 않은 **해탈지견**의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수행자나 또는 성직자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 보자. 그러나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나보다 더 해탈지견을 성취해서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내가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이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어떨까?

그때 범천 싸함빠띠가 세존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알아차리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범천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범천 싸함빠띠는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세존께서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싸함빠띠] "세상에 존경받는 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이셨던 세존들도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이 되실 세존들도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현재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인 세존들도 진리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범천 싸함빠띠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싸함빠띠]

"과거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미래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현재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수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네.  
모두 올바른 진리를 공경하며 살았고 살고 있으며 또한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깨달은 님의 가르침이네.  
자신에게 유익함을 바라고 위대한 것을 소망하는 자는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진리를 존중해야 하리."

**註.**

- 붓다고사에 의하면 이 경에서 기술되는 사건은 완전한 깨달음(sambodhi)을 얻은 후 5주째에 일어난 것이다.

- 계행 삼매 지혜 해탈 해탈지견 :

여기까지 다섯 가지의 수행단계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계행(sila) 삼매(samadhi) 지혜(panna) 해탈(vimutti) 해탈지견(vimutti-nanadassana). 이러한 수행단계의 완전성에 도달하지 않은 한 스승

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점에서 다른 수행자들을 훨씬 능가하므로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無師)는 말이다.

- '나는 내가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이 진리를 공경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떨까?:'  
리즈 데이비스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곧 법(法,dhamma)은 불교 발전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神이 되었다고 했는데, 가이거는 바로 위 내용이 법신불 신앙의 시초라고 생각했다.

(가라와경-Gāravasuttaṃ-존경경, 상윳따니까야 S6.1.2, 전재성박사역)

# Suttantapiṭake

## Samyuttanikāyo

### Paṭhamo bhāgo

### Sagāthavaggo

## 6. Brahmasamyuttaṃ

### 1. Kokālik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6. 1. 1.

Āyācanasuttaṃ

172. Evaṃ me sut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uruvelāyaṃ viharati najjā nerañjarāya tīre ajapālanigrodhamūle paṭhamābhisambuddho.

Atha kho bhagavato rahogatassa paṭisallīnassa evaṃ cetaso parivitaṅko udapādi. Adhigato kho myāyaṃ dhammo gambhīro duddaso duranubodho santo paṇīto atakkāvacaro nipuṇo paṇḍitavedanīyo, ālayarāmā kho panāyaṃ pajā ālayaratā ālayasammuditā<sup>1</sup> ālayarāmāya kho pana pajāya ālayaratāya ālayasammuditāya duddasaṃ idaṃ tḥānaṃ yadidaṃ idappaccayatā paṭiccasamuppādo. Idampi kho tḥānaṃ yadidaṃ sabbasaṅkhārasamatho sabbūpadhipaṭinissaggo taṇhakkhaya<sup>2</sup> virāgo nirodho nibbānaṃ. Ahañceva kho pana dhammaṃ deseyyaṃ. Pare ca me na ājāneyyumaṃ. So mamassa kilamatho sā mamassa vihesāti.

Apissudaṃ<sup>3</sup> bhagavantaṃ imā anacchariyā gāthāyo paṭibhaṃsu. Pubbe assutaṃpubbā:

Kicchena me adhigataṃ<sup>1</sup> halandāni pakāsituṃ,  
Rāgadosaparetehi nāyaṃ dhammo susambudho.

Paṭisotagāmiṃ nipuṇaṃ gambhīraṃ duddasaṃ aṇuṃ,  
Rāgarattā na dakkhinti<sup>4</sup> tamokkhandhena āvutāti. <sup>5</sup>

[PTS Page137] [\q 137/] iti<sup>6</sup> bhagavato paṭisañcikkhato appossukkatāya cittaṃ namati no dhammadesanāya.

Atha kho brahmuno sahampatiṃsa bhagavato cetasā ceto parivitakkamaññāya etadahosi: nassati vata bho loko. Vinassati vata bho loko yatra hi nāma tathāgatassa arahato sammāsambuddhassa appossukkatāya cittaṃ namati no dhammadesanāyāti. Atha kho brahmā sahampati seyyathāpi nāma balavā puriso sammiñjitaṃ<sup>7</sup> vā bāhaṃ pasāreyya. Pasāritaṃ vā bāhaṃ sammiñjeyya, evameva brahmaloke antarahito bhagavato purato pāturahosi.

1. Samuditā-syā. [PTS]2.] Taṇhākkhaya-machasaṃ. 3. Apissu-machasaṃ. 4. Dakkhanti-machasaṃ. 5. Ācuṭāti-machasaṃ. 6. Itiha-machasaṃ. 7. Samiñjitaṃ-machasaṃ.

[BJT Page 250] [\x 250/]

Atha kho brahmā sahampati ekaṃsaṃ uttarāsaṅgaṃ karitvā dakkhiṇajāṇumaṇḍalaṃ paṭhaviyaṃ nihantvā yena bhagavā tenaṅjaliṃ paṇāmetvā bhagavantaṃ etadavoca: " desetu bhante bhagavā dhammaṃ desetu sugato dhammaṃ. Santi sattā apparajakkhajātikā. Assavaṇatā dhammassa parihāyanti. Bhavissanti dhammassa aññātāro"ti. Idamavoca brahmā sahampati. Idaṃ vatvā athāparaṃ etadavoca:

Pāturahosi magadhesu pubbe dhammo asuddho samalehi cintito,

Avāpuretaṃ<sup>1</sup> amatassa dvāraṃ suṇantu dhammaṃ vimalenānubuddhaṃ.  
Sele yathā pabbatamuddhaniṭṭhito yathāpi passe janataṃ samantato,  
Tathūpamaṃ dhammamayaṃ sumedha pāsādamāruyha samantacakkhu,  
Sokāvatiṇṇaṃ<sup>2</sup> janatamapetasoko avekkhassu jātijarābhībhūtanti.  
Uṭṭhehi vīra vijitasaṅgāma satthavāha anaṇa vicara loke,  
Desassu<sup>2</sup> bhagavā dhammaṃ aññātāro bhavissantīti.

[PTS Page 138] [\q 138/] atha kho bhagavā brahmuno ca ajjhesanaṃ viditvā sattesu ca kāruññataṃ paṭicca buddhacakkhunā lokaṃ volokesi. Addasā kho bhagavā buddhacakkhunā lokaṃ volokento satte apparajakkhe mahā rajakkhe tikkhindriye mudindriye svākāre dvākāre suviññāpaye duviññāpaye appekacce paralokavajjabhayadassāvino viharante ( appekacce na paralokavajjabhayadassāvino<sup>3</sup> viharante). Seyyathāpi nāma uppaliniyaṃ vā paduminiyaṃ vā puṇḍarīkiniyaṃ vā appekaccāni uppalāni vā padumāni vā puṇḍarīkāni vā uduke jātāni uduke saṃvaddhāni udakānuggatāni<sup>4</sup> anto nimuggaposīni. Appekaccāni uppalāni vā padumāni vā puṇḍarīkāni vā uduke jātāni uduke saṃvaddhāni samodakaṃ ṭhitāni. Appekaccāni uppalāni vā padumāni vā puṇḍarīkāni vā uduke jātāni uduke saṃvaddhāni udakā accuggamma ṭhitāni<sup>5</sup> anupalittāni udakena. Evamevaṃ bhagavā buddhacakkhunā lokaṃ volokento addasa satte apparajakkhe mahārajakkhe tikkhindriye mudindriye svākāre dvākāre suviññāpaye duviññāpaye appekacce paralokavajjabhaya dassāvino viharante ( appekacce na paralokavajjabhayadassāvino viharante). Disvāna brahmānaṃ sahampatiṃ gāthāya paccabhāsi:

1. Apāpuretaṃ-machasaṃ. Syā 2. Desetu-syā[PTS] 3. Bhayadassāvīne-machasaṃ 4. Udakānugatāni-syā. 5. Tiṭṭhanti-sīmu<sup>2</sup>, syā. [PTS] (-) Antarita pāṭho sīhalapotthakesu na dissate.

[BJT Page 252] [\x 252/]

Apārutā tesāṃ<sup>1</sup> amatassa dvārā ye sotavante pamuñcantu saddhaṃ,  
Vihīṃsasaññī paguṇaṃ na bhāsīṃ dhammaṃ paṇītaṃ manujesu brahmeti.

Atha kho brahmā sahampati katāvakaṣo khomhi bhagavatā dhammadesanāyāti bhagavantaṃ abhivādetvā padakkhiṇaṃ katvā tatthevantaradhāyīti.

6. 1. 2.

Gāravasuttaṃ

173. Evaṃ me sut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uruvelāyaṃ viharati najjā nerañjarāya tīre ajapālanigrodhamūle<sup>2</sup> paṭṭhamābhisambuddho.

[PTS Page139] [\q 139/] atha kho bhagavato rahogatassa patisallīnassa evaṃ cetaso parivitaṅko udapādi: dukkhaṃ kho agāravo viharati appatisso. Kanna khvāh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kkatvā garu katvā<sup>3</sup> upanissāya vihareyyanti.

Aparipuṇṇassa kho samādhikkhandhassa pāripuriyā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eyyaṃ, na kho panāhaṃ passāmi sadevake loke samāraṅ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ttanā samādhi sampannataraṃ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yamahaṃ sakkatvā garu katvā<sup>3</sup> upanissāya vihareyyanti.

Aparipuṇṇassa kho paññākkhandhassa pāripuriyā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eyyaṃ, na kho panāhaṃ passāmi sadevake loke samāraṅ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ttanā paññā sampannataraṃ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yamahaṃ sakkatvā garu katvā<sup>3</sup> upanissāya vihareyyanti.

Aparipuṇṇassa kho vimuttikkhandhassa pāripuriyā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eyyaṃ, na kho panāhaṃ passāmi sadevake loke samāraṅ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ttanā vimutti sampannataraṃ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yamahaṃ sakkatvā garu katvā<sup>3</sup> upanissāya vihareyyanti.

Aparipuṇṇassa kho vimuttiñāṇadassanakkhandhassa pāripuriyā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eyyaṃ, na kho panāhaṃ passāmi sadevake loke samāraṅ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ttanā vimutti ñāṇadassanasampannataraṃ aññaṃ samaṇaṃ vā brāhmaṇaṃ vā yamahaṃ sakkatvā

garu katvā<sup>3</sup> upanissāya vihareyyaṃ. Yannūnāhaṃ yvāyaṃ dhammo mayā abhisambuddho tameva dhammaṃ sakkatvā garu katvā<sup>5</sup> upanissāya vihareyyanti.

1. Te-syā. 2. Nigrodhe-sīmu. 1 Syā. [PTS] Sī1, 2. 3. Guruṃ katvāmachasaṃ. 4. Paripūriyā-ā. 5. Garuṃkatvā, -sī1.

[BJT Page 254] [\x 254/]

Atha kho brahmā sahampati bhagavato cetasā ceto parivitakkamaññāya seyyathāpi nāma balavā puriso sammiñjitaṃ vā bāhaṃ pasāreyya, pasāritaṃ vā bāhaṃ sammiñjeyya, evamevaṃ brahmaloke antarahito bhagavato pūrato pāturahosi.

Atha khe brahmā sahampati ekaṃsaṃ uttarāsaṅgaṃ karitvā yena bhagavā tenañjaliṃ paṇāmetvā bhagavantaṃ etadavoca: [PTS Page 140] [\q 140/] evametaṃ bhagavā, evametaṃ sugata. Yepi te bhante ahesuṃ atītamaddhānaṃ arahanto sammāsambuddhā tepi bhagavanto dhammaññeva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iṃsu. Yepi te bhante bhavissanti anāgatamaddhānaṃ arahanto sammāsambuddhā tepi bhagavanto dhammaññeva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issanti. Bhagavāpi bhante etarahi arahaṃ sammāsambuddho dhammaññeva sakkatvā garu katvā upanissāya viharatūti. Idamavoca brahmā sahampati. Idaṃ vatvā athāparaṃ etadavoca:

Ye cabbhatītā<sup>1</sup> sambuddhā ye ca buddhā anāgatā,  
Yo ceterahi sambuddho bahunnaṃ<sup>2</sup> sokañāsano.  
Sabbe saddhammagaruno vihaṃsu<sup>3</sup> viharanti ca,  
Athopi<sup>4</sup> viharissanti esā buddhāna dhammatā.  
Tasmā hi atthakāmena<sup>5</sup> mahattamabhikañkhatā,  
Saddhammo garu kātabbo saraṃ buddhānasāsaṃ.

<http://awake.kiev.ua/dhamma/tipitaka/2Sutta-Pitaka/3Samyutta-Nikaya/Samyutta1/06-Brahma-Samyutta/01-Kokālikavaggo-p.html>

**Sutta Pitaka**  
**Samyutta Nikāya**  
Division I - Sagātha  
Book 6 - Brahma Samyutta  
(Chapter 1 - Pathamo (Kokālika) 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6. 1. 1.

(1) Āyacanaṃ - Entreaty

1. I heard thus. Soon after enlightenment,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Sāvatti on the bank of river Nerañjara, at the root of the Ajapāla banyan tree.

2. When the Blessed One was in seclusion this thought and thought process arose to him:

3. The Teaching I have realized is deep, difficult to see and understand, is peaceful, exalted, not logically attained, is subtle and it is for the wise to realize. People at large, are fond of settling, attached to it and risen from settling. By the populace fond of settling, attached to it and risen from settling, this point is difficult to be seen. That is, how there is an arising because of this, this too is difficult to be seen. That is the appeasement of all determinations, the giving up of all endearments, destruction of craving, fading, cessation and extinction. If I was to preach this, others would not know what I say. I will be fatigued and it would be annoyance to me.

4. To the Blessed One these stanzas never heard before, occurred at that time.

“I attained this with difficulty, why should I preach  
By those overcome by greed and hate, this is not easy to realize.  
It's clever, deep, difficult to see, subtle and goes against the stream.  
The passionate do not see it, covered by a mass of darkness.”

5. When the Blessed One reflected in this manner, his mind bent to living at ease and not preaching.

6. Then it occurred to Brahma Sahampathy who knew the thought process in the Blessed One's mind.

‘Indeed the world is going to be destroyed if the worthy, rightfully enlightened, Thus Gone One's mind, bends to living at ease and not preaching.

7..Then Brahma Sahampathy as quickly as a strong man would stretch his bent arm or bend his stretched arm, disappeared from the world of brahma and appeared before the Blessed One

8. Then Brahma Sahampathy arranging his robe on one shoulder, put the right knee on the ground and clasping his hands towards the Blessed One said:

“Venerable sir, Blessed One, well gone one, preach the Teaching, there are beings with few defilements, they would deteriorate not hearing the Teaching. There will be those who understand the Teaching.

9. Brahma Sahampathy further said thus:

“In Magadha, in the past the impure teaching was present erroneously thought out.

Open the door to deathlessness! May the pure Teaching be heard!

As one standing on a rock, at the top of a mountain, could see the populace on all sides,

Wise one, I compare you there, ascend the mansion and relieve the grieving.

Look at those overcome with birth and decay. Hero steady and win the battle

Be the caravan leader and tour the world without a debt.

Blessed One, proclaim the Teaching. There will be those who understand!”

10. The Blessed One, knowing Brahma's entreaty and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looked at the world with the eye of an enlightened one.

11. The blessed One saw beings with few defilements, many defilement, sharp mental faculties, weak mental faculties, with good dispositions and bad dispositions, beings who could grasp quickly and slowly and some others living with fear, to do wrong, conscious of the next world.

12. Just as out of blue lotuses, red lotuses and white lotuses, a few are born, nourish, grow and bloom, in the water. A few come up to the level of the water and bloom and a few others stand above the water and bloom without touching the water. In the same manner the blessed One saw, beings with few defilements, many defilement, sharp mental faculties, weak mental faculties, with good dispositions and bad dispositions, beings who could grasp quickly and slowly and some others living with fear, to do wrong, conscious of the next world.

13. Then the Blessed One replied to Brahma Sahampathy with this stanza:

“The door to deathlessness is open.

May those who have ears be released out of faith!

My perception is not hurting and will not speak straightforward words

Brahma, the exalted Teaching is available to humans.”

14. Then Brahma Sahampathy, knowing that the Teaching of the Blessed One would be available, worshipped and circumambulated the Blessed One and vanished from there.

6. 1. 2.

(2) Gāravo - To Respect

1. I heard thus. Soon after enlightenment,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Sāvatti on the bank of river Nerañjara, at the root of the Ajapāla banyan tree.

2. When the Blessed One was in seclusion this thought and thought process arose to him: ‘Attending to and revering which recluse or Brahmin should I live?’

3. Then it occurred to the Blessed One: “For the completion of my incomplete mass of virtues, if I was to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a recluse or Brahmin, yet in this world together with

Māra, Brahma,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I do not see a recluse or Brahmin, more virtuous than me to attend to, with reverence.”

4. “For the completion of my incomplete mass of concentration, was I to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a recluse or Brahmin, yet in this world together with Māra, Brahma,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I do not see a recluse or Brahmin, more concentrated than me to attend to, with reverence.”

5. “For the completion of my incomplete mass of wisdom was I to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a recluse or Brahmin, yet in this world together with Māra, Brahma,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I do not see a recluse or Brahmin, more wise than me to attend to, with reverence.”

6. “For the completion of my incomplete mass of release, was I to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a recluse or Brahmin, yet in this world together with Māra, Brahma,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I do not see a recluse or Brahmin, more released than me to attend to, with reverence.”

7. “For the completion of my incomplete mass of knowledge and vision of release, was I to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a recluse or Brahmin, yet in this world together with Māra, Brahma,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I do not see a recluse or Brahmin, more complete in the knowledge and vision of release than me to attend to, with reverence.”

8. “What if I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that same Teaching I have realized?”

9. Then Brahma Sahampathy, knowing the thought and thought process in the Blessed One's mind, and as quickly as a strong man would stretch his bent arm, or bend his stretched, arm vanished from the world of Brahma and appeared before the Blessed One.

10. Then Brahma Sahampathy, arranging his robe on one shoulder, put the right knee on the ground, and clasping his hands towards the Blessed One, said:

11. “That is right, Blessed One! That is right, Well Gone One! The worthy, rightfully enlightened ones, in the past lived attending to and revering the Teaching. The worthy, rightfully enlightened ones, in the future will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the Teaching. The worthy, rightfully enlightened one, at present live attending to and revering the Teaching.”

12. Then brahma Sahampathy further said:

“The rightfully enlightened ones, of the past and the future  
And the present rightfully enlightened one, dispel much grief.  
They all lived revering the Teaching. Do revere the Teaching!  
In the future too it will be so. That's how the enlightened ones do.  
Therefore those who desire their own welfare,  
Revere the good Teaching and the dispensation, of the enlightened ones.”

<http://awake.kiev.ua/dhamma/tipitaka/2Sutta-Pitaka/3Samyutta-Nikaya/Samyutta1/06-Brahma-Samyutta/01-Kokalikavaggo-e.html>